

# ‘軍’과 ‘核’ 문제 다룬 국내 연구서 둘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동서 냉전구조의 급격한 와해로 美·蘇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군축문제 논의가 세계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92회계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과 전경련측의 문제제기로 국방예산 논쟁이 발화,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방부 등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아직은 국방비를 줄일 상황이 못된다는 데 반해, 민간쪽에서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보다 시급한 국내투자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축소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문제와 관련해 한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의 극한치를 상징하는 핵문제 또한, 강대국들간의 군축협상 및 핵확산금지조약, 북한의 핵제조능력 여부 등과 맞물려 최근 우리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채 ‘노 코멘트’로 일관돼 오던 주한 미군의 핵무기 보유문제가 이제는 이른바 ‘한반도 非核지대화’로까지 그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거의 동시에 출간된 두권의 책 「70만 경영채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지만원, 김영사)와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하영선, 나남)는 그런 우리들의 주목에 부응하고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책들이다. 이제까지 공개적인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했던 미묘한 문제들에 대한 거의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 말고도 이 책들은, 우리들 당대의 현실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많은 시사를 던져 준다는 점에서 드물게 귀중한 작업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군」은 민간인이 쓴 군사관계 전문서로서 국내 초유의 책. 육사 22기로 예비역 육군 대령인 저자 池萬元씨는 이 책을 통해 美육군 대학원에서 경영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주로 예산 및 군수문제를 다뤘던 ‘내부자’의 경험에 근거해 우리 국방예산의 여러 문제들을 이른바 ‘시스템분석’의 시각으로 파헤치고 있다. 모두 10장으로 나는 가운데, 주한 미군과 핵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미국의 방위비 분담압력, 한국 국방관리시스템과 전근대적 예산관리, 한국군 전략사업의 효율성, 세계의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군사경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제시돼 있는데, 특



히 국방예산 편성 및 집행의 낭비적 성향들이 날카롭게 비판돼 있어 주목을 끈다.

7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이탈리아 장갑차 수입 사례가 그 좋은 보기가 된다.

“아세아자동차는 370여대나 되는 이탈리아 장갑차를 기술도입 생산하여 한국군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물량이 납품된 1979년부터 발생한 수리부품 소요에 대하여 아세아자동차는 아무 일도 해주지 못했다. 아세아자동차는 이탈리아로부터 기름이 칠해진 부품과 구성품을 단 한개의 여분도 없이 374대분만 구입해서 이를 이탈리아인이 설치해준 공정에 따라 조립을 했을 뿐 그 어느 부품 도면 하나 구입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아무리 훌륭한 장비라 하더라도 수리부품이 조달되지 못하면 이는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다. 부품조달이 끊긴 이탈리아 장갑차는 결국 그후부터는 몇대씩 헐어서 부품을 뽑아 남은 차량을 수리해가는 이른바 ‘헐어쓰기’ 방법에 의해 운용돼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은 숫자는 몇 대 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장갑차의 평균수명은 5~6년에 불과했다.”

저자에 의하면 이같은 문제는 그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재현되는데, 예컨대 1980년대 중반 현대정공은 한국형 K-I전차에 사용되는 예열기를 독일 웨바스톤사와 단가 3백만원에 계약했으나, 이 예열기는 국내의 동한산업이 제조해서 단가 73만원밖에 웨바스톤사에 납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는 것.

그 내용과 출간시기의 미묘함이 겹쳐 이 책

은 어떤 면에서 한국군의 문제점을 ‘폭로’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그러나 저자 지만원씨는 이 책의 진정한 무게중심이 제도개선에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군에 비효율적인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구성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시스템’의 문제로 이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 경영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스템경영의 개념 없는 보병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드는 저자는 “이 한편의 책이 군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하나의 우정 어린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재인식」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등을 펴낸 바 있는 국제정치학계의 중견 하영선(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의 저서. 하교수의 박사학위논문 「약소국의 핵화와 세계질서- 한국의 경우」(1979, 美워싱턴대)를 제1부에 실고, 제2부에는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하교수의 관련 논문을 한데 묶었다.

이 책의 제1부에서 다루어진 핵확산의 문제는 현대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로서 북한의 핵기술 개발로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연구 대부분이 단순하고 평면적인 시사해설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 이 책은 그같은 핵확산의 문제를 세계사적 차원의 역사적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한편, 그것을 다시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핵확산에 대한 우리

나름의 문제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각인돼 있어 주목을 끈다.

저자에 의하면 핵확산은 단순히 핵보유국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 이래의 세계질서 속에서 강대국의 군사 및 경제적 우위의 쇠퇴와 함께 이루어지는 힘의 비집중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같은 시각의 체계화를 위해, 저자는 ①현대 세계질서 속에서의 핵무기 집중과 분산의 역사적 추세 ②핵기술의 세계적 확산의 범위와 과정 ③한반도 사례연구를 통한 약소국의 핵화가 현대 세계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④세계질서의 전략적 약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핵확산 문제 해결의 공정한 방법 모색 등에 그 연구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연구과정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글 4편을 한데 묶은 제2부는, 제1부의 연구가 한반도 핵확산을 현대세계질서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틀 속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한반도의 핵무기를 국제체계, 남북한 분단체제, 국내체제의 복합적인 틀 속에서 보다 입체적인 조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반도의 핵무기」 「한·미 군사관계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통일문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탈냉전과 한반도의 평화」 등 4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한반도 핵무기의 현실과 그 핵무기의 군사·정치·윤리적 성격, 한·미 및 남·북한 관계의 일부로서의 핵문제, 그리고 탈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모색의 일환으로서의 핵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역사적 현실의 변화를 인식의 변화가 미쳐 못 따라갔다”는 저자의 견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우리 시각으로 씌어진 최초의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강철주기자